

한글천수경 마침내 완성 운곡 붙여 내년 초 보급

3년여 노력 '결실'...한글의례문 대중화 '과제'

종단본 한글의례문 <천수경>이 마침내 완성됐다. 조계종과 의례위원회(위원장 인묵스님)는 지난 19일 한글의례문 천수경을 공포했다. 반야심경과 칠정례에 이어 천수경까지 한글의례문이 완성됨으로써, 불자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일상예의의 한글화가 일단락됐다.

종단이 의례의식 한글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지난 2011년 의례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다. 봉선사 염불원장 인묵스님이 위원장을 맡아 3년 여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야심경, 칠정례, 천수경까지 차례로 한글로 번역했다.

천수경은 한글로 공포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의례위원회가 출범하고 두 번째 회의 때부터 천수경 한글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2012년 10월 공청회를 열어 한글천수경 초본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쳤다.

참제염장십이존불, 십악참회, 자성사후서원 삭제의견도 제기됐으나

그대로 두고, 신묘장구대라니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의례위원회는 지난 6월 한글 천수경을 결의했다.

공포 직전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종무회의서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고,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됐다가 이월돼 다시 5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 11월 196회 정기종회에서 마침내 조건부로 가결됐다. 종무부와 의례위원회가 자구수정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6일 17차 의례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완성됐다.

공포됐지만 대중화를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 한글번역문만 완성됐을 뿐 운곡은 미완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의례위원회 실무위원들이 한글천수경에 맞는 운곡을 붙여 내년 초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사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상예의 한글화했지만 대중화는 여전히 종단의 화두다. 2011년 10월 반야심경이 공포된 후 중앙종무기관

의 공식행사에서는 한글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2012년 6월 칠정례 공포 후에는 승가교육과 4급 및 5급 승가고시에 한글의례의식이 반영됐다. 최근에는 반야심경과 칠정례를 수록한 표준한글독송집 CD를 제작해 배포했다. 하지만 지역 사찰까지 대중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의례위원 중에는 “사찰에서 한글의례를 시행하는지 종단차원에서 점검하고 4급, 5급 외에 3급 승가고시에서도 한글의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례위원장 인묵스님은 “의례는 습관이 되면 정착할 수 있다”며 “공포 후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당장 수정하기보다 일정기간 사용한 뒤에 부족한 부분을 고쳐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례위원회는 향후 사시불공, 시식, 천도재, 상장례 의식 등에 대한 한글화작업을 추진한다.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진관사·삼학사>

문화재위원회 '결의'

“고통치유 행복기원
불교 대표적 의례”
총무원 '환영' 논평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스님) 국행 수륙대제와 동해 삼학사(주지 원명스님) 국행수륙대제의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갖

고 이같이 결의했다. ▶관련기사 7면
총무원은 같은 날 문화부장 해일스님 명의로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문화부장 해일스님은 “수륙재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의례이자, 종교를 넘어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온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라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불교의 무형문화유산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

부장 스님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우리 종단은 수륙재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륙재의 무형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준 문화재청 관계자와 문화재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 지정 결의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정고시를 거쳐 지정단체로 공식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성수 어현경 기자

“약자 보듬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합시다”

조계종 성탄 메시지

성탄절을 앞두고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 성탄트리와 환하게 불을 밝혔다. 조계종은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예수 탄신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지난 18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 트리 3개의 점등식을 열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점등에 앞서 축하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은 나눔과 희생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다. 이런 가르침대로 소외된 약자를 보듬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사회의 선한 이웃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며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한 이때, 다양한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동의 선을 향해 함께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내년부터 승가대 내신성적 매긴다

예불 불공 108배 등
일상수행 점수 매겨
4급 승가고시 대폭 변화

내년도 시행되는 4급 승가고시에 학인 스님들의 내신 성적과 같은 일상수행평가가 점수를 반영된다. 이 밖에도 2급과 3급 승가고시에서는 논술 외에 단답형 문제가 추가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스님)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7차 고시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승가고시 출제 유형과 일정을 확정했다.

승가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4급 승가고시는 2014년 3월7일 오전 9시 중앙승가대에서 치러진다. 1교시 논술, 2교시는 표준교과과정 7개 분야에 대한 객관식 및 단답형 50문

제가 출제되며 3교시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과과정에 대한 시험 외에도 일상수행평가가 면접에 반영돼 눈길을 끈다. 면접에서는 기존에 학업 및 수행계획을 묻고 한글반야심경, 칠정례 및 불공, 시식시연을 점검하는 것 외에 일상수행평가가 서류점수로 반영된다.

일상수행평가는 기본선원, 중앙승가대, 동국대를 포함한 승가대학의 교수 스님이 학인 스님들이 재학 기간 조석예불, 사시불공, 108참회, 경전합송 등 승가대학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수행일과를 점수로 반영한 것이다. 배점은 30점이다.

교육원 교육국장 가섭스님은 “일상수행이 고시에 반영되면 ‘승가대학 담임 교수사나 동국대 중앙승가대의 수행관장 역시 교육현장에서 교육과 수행지도를 엄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가한지 10년 된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3급과 승남 20년 된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2급 승가고시의 출제 유형도 달라져, 논술 외에 단답형 문제가 출제된다. 2급 승가고시는 논술과 단답형 50문제가 추가된다.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1교시 조계종사와 2교시 선택과목 논술 외에도 각 교시마다 단답형 50문제를 더 풀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2급과 3급 승가고시용 예상문제 1000개가 수록된 문제집을 발간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응시인원이 많아 3일에 걸쳐 시행됐던 3급 승가고시는 내년부터 1회로 진행된다. 고시위원회는 날짜별로 서로 다른 문제를 출제해 평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응시자 스님 전체가 한 번에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어현경 기자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통도사 범주사 마곡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선암사 등 7개 사찰

영축총림 통도사와 속리산 범주사 등 7개 사찰이 ‘한국의 전통산사’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전통산사’와 ‘고령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이 12월17일 등재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한

국의 전통산사’ 대상은 통도사(양산), 범주사(보은), 마곡사(공주), 대흥사(해남), 봉정사(안동), 부석사(영주), 선암사(순천) 등 7개 사찰이다. 문화재청은 “사찰 건축 양식과 공간 배치 등에서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중국적인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토착성을 보여주는 동아시아 불교문화 교류의 증거”라고 등재 배경을 밝혔다.

범주사 주지 현조스님은 “불교문화는 단순히 화석화(化石)된 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수행하고 전파하는 살아있는 문화”라면서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 유지 계승 발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1월26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 대상으로 확정하고, 12월3일 외교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잠정목록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soolae@bulgyo.com

■ 기획집단/ 사찰음식 대중화 '과제' 3면 ■ 서산 '불교길' 없애고 '천주교길' 조성 6면

社告 공동캠페인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사는 지난 11월 8일 필리핀을 강타한 하이옌 태풍 피해로 절망에 빠진 필리핀 국민들을 위한 재해제한 긴급구호기금을 모금합니다. 태풍 참사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에 자비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관련기사 2면

■ 자비나눔 계좌
국민 023501-04-125198 (예금주: 불교신문사)
농협 301-0137-6667-1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 문의
02-730-4488(불교신문)
02-737-9595(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불교신문

대한불교조계종 남해제일관음기도도량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1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향일암에서 힘차고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새 해를 보며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2014년 해맞이 철야기도

■ 일 시 _ 2013년 12월 31일 오후 6시 ~ 2014년 1월 1일 오전 6시
■ 동참비 _ 30,000원 ■ 문 의 _ 061)644-4742

해맞이 철야기도 동참 신행단체
서울 불찬회 02-387-8578, 010-3744-9264(조계사 오전 7시 출발)
부산 금강정진회 010-6420-0383(부산진역 오후 7시)
대전 귀빈불자회 010-9415-8717
청주 보리불심회 010-5487-3969(청주체육관 오후 8시)
울산 태진관 광 010-3856-3683
창원 성산보현회 010-4545-9301